

March 06 눈먼 자를 다시 보게

- 누가복음 4:16-19; 요한복음 9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내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신 것은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지, ‘내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나를 구원하실 만한 분인가 증거와 표적을 본 후에 만나려 합니다.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만나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믿게 됩니다. 눈멀었던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부르더니(요 9:11)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는 ‘선지자’라고 부릅니다(요 9:17).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확신합니다 (요 9:33).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 9:38). 제자들은 맹인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했습니다. 당사자나 그 부모 역시 날 때부터 눈멀게 된 이유를 들 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유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보게’라는 말씀은 본래 볼 수 있었음을 뜻합니다(눅 4:18). 그런데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누구의 죄’인지에 집중하고 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작 보아야 할 것 대신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황이나 설명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와 구원입니다. 원인을 알아 고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라는 말에 담긴 불치와 불가능이 그렇습니다. 눈멀게 된 이유를 아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 ❶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 ❷ 믿을 만한 분인지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테스트 중입니까?